



강 북 구 의 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2월 07일
(월요일)

북부신문 7면

interview

이영심 강북구의회 예결위원장

이영심 예결위원장, “예산의 실효성과 시급성 판단”

중복되는 복시예산 등 시스템 정비 등으로 효율성 살려야



이영심 위원장은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고, 신규 사업의 경우 시급성을 우선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2회 임시회에서 추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영심 의원이 2016년도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됐다.

7대 들어 두 번의 예산안 부결을 겪었던 강북구의회에서 예결위원장이란 막중한 임무를 얻어 맡게 된 것.

당시 191회 임시회 추경심사에서 의원들 간 감정싸움 형태로까지 번지며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진통을 겪었던 강북구의회는 192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며 이영심, 이백균, 이정식, 이호균, 김명숙 의원에게 당시 재심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

5명의 의원들은 진통을 겪었던 추경안 심의를 다시 진행하며 갈등을 봉합, 추경예산안 심의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영심 위원장은 “한번 부결 된 후로 예결위원들과 함께 충실하고 면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혜성사업이나 중복예산편성 등도 꼼꼼히 따져 예산의 실효성 확보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도 한차례 진통을 겪었던 강북구의회는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진통을 겪으며 의원들 간 감정 대결 양상까지 치달기도 했다. 결국 긴급 소집한 임시회에서 예결위원들은 절충점을 찾아내 추경예산안을 무사히 처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강북구의회는 다시 한 번 본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당시 추경안을 심사한 5명의 의원들에게 일임하는 선택을 했다. 이번에도 위원장에는 이영심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정식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위원장을 맡게 된 이영심 의원에게 그만큼 책임감도 크게 느껴졌다. 이번에도 예산안 심의에서 잡음이 생기면 강북구의회로서는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된다는 것이 이영심 의원의 생각.

“그래서 더더욱 꼼꼼하고 신중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 위원장은 “중복되는 복지사업 예산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실효성을 잘 판단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 중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복지 예산으로 잡히는 예산들이 의외로 많다”며 “비슷한 성격의 복지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많다. 복지 시스템 정비 등으로 효율성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때”라며 이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신중한 예산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북구의 경우 예산안 규모와 상관없이 가용 예산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꼼꼼한 예산 심의를 통해 향후 진행이 불투명한 신규 사업 유지보다는 예산 편성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의회의 역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이영심 위원장의 판단.

또 특혜성 사업이나 중복예산편성 등도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며 ‘실효성’과 ‘시급성’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최우선으로 둘 것임을 확실히 했다.

강북구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규모는 4,478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4,375억 800만원, 특별회계 103억 1,300만원,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9.5%, 377억 8,000만원 증가한 수치로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 결과와 토대로 9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시사프리 6면

강북구의회 이영심 예결위원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하겠다”

강북구의회 3선 의원인 이영심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2016년도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특히, 주민들을 위해 올바른 예산 편성과 실효성 및 시급성을 잘 판단해 위원들과 함께 처리할 것을 다짐했다.

이영심 위원장은 “지난해처럼 본예산을 다시 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중점을 찾는 일이 우리가 한 일이다”는 말을 강조했다. 또 7대 들어 두 번의 예산안 부결을 겪었던 강북구의회에서 예결위원장이란 막중한 임무를 얻어 맡아 아까가 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주민의 혈세를 여실하게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강북구민들에게 가장 공평하게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영심 위원장은 가장 논란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구멍을 좀 더 견제 감시 하자는 것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생각이다. 행정위원회 건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복제예산, 구획정리 하고자 하는 일 중에 끝나무렵까지 예산을 끌어올리는 예산이 예상된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국외 자금 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복지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규모와 예산심의 방향은 이 위원장은 “올해 예산규모는 보편적 복지사업 등 국사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국·시의 재정사업은 늘어났으나 자체 재정사업은 일정한 상충으로 신규사업이 꼭 필요한지 필요성을 잘 점검해 실효성 확보를 계획한다”며 “무엇보다 신심성 행이나 사업은 장려한 것에도 심의에 불합 부분은 과감히 삭감,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



산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위기로 할 방침이고, 동료의원 15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공무원들이 제치는 예산도 검토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 한 일이며 예산처리 다시 심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번 예결위원회에 대해 “한번 부결 된 후로 예결위원들과 함께 충실하고 면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도 한차례 진통을 겪었던 강북구의회는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진통을 겪으며 의원들 간 감정 대결 양상까지 치달기도 했다. 결국 긴급 소집한 임시회에서 예결위원들은 절충점을 찾아내 추경예산안을 무사히 처리할 수 있었다.

이영심 예결위원장은 “복지예산 중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복지 예산으로 잡히는 예산들이 의외로 많다”며 “비슷한 성격의 복지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많다. 복지 시스템 정비 등으로 효율성을 살

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신중한 예산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혜성 사업이나 중복예산편성 등도 꼼꼼히 따져 볼 것이다”며 “실효성과 시급성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최우선으로 둘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북구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규모는 4,478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4,375억 800만원, 특별회계 103억 1,300만원, 전년도 예산 대비 9.5%, 377억 8,000만원 증가한 수치로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 결과와 토대로 9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영심 예결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심사 결과와 토대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영심 예결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심사 결과와 토대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강북구의회 이영심 예결위원장 인터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되도록 노력



“3선 의원으로서의 의정경험을 살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집행부의 예산안을 세밀히 살펴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고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영심 의원의 말이다.

열심히 발로 뛰며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다니는 성실한 이영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3선)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주민의 혈세를 여성특유의 섬세함으로 꼼꼼히 심의, 강북구민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방향을 들어보았다.

◆ 내년도 강북구 예산안심사라는 중책을 맡았다. 소감은?

예결위원장직을 수락해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중책을 맡아 어깨가 다소 무겁지만 꼼꼼하고 공정하게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구청을 좀 더 견제감시 하자는 것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생각이다. 행정위원회 건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봉제예산,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일 중에 꿈나무장학재단 출연금 등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400억 정도 세입이 늘었지만 실제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 내년도 예산심의 방향은?

올해 예산규모는 보편적 복지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은 늘어났으나 자체 재정금액은 열악한 상황으로 신규사업시 꼭 필요한지, 필요성을 잘 점검해 심도있게 심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선심성 행사나 사업은 정확한 것대로 심의해 줄일 부분은 과감히 삭감, 어려운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동료의원 13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세운 예산도 존중하는 점점을 찾는 것이 할 일이며 예전처럼 다시 심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집행부에서 꼼꼼히 편성한 했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예산안이 가장 공정하게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혈세가 한 톨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구민의 복지수요와 안전한 환경조성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5대 때는 교육관련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고 6대 때는 송천동 통장들의 민원 해결을 많이 했다. 7대에 와서는 삼양동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영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강북구의회 이영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터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위해 점점 찾겠다”

구민혜택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여성의 섬세함으로 심의 나설터
5대 교육, 6대 도로포장, 7대 쓰레기 무단투기 관심갖고 활동

“강북구의회 3선 의원으로서의 의정경험을 살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집행부의 예산안을 세밀히 살펴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고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영심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특히 “지난해처럼 본예산을 다시 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점점을 찾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심 위원장은 “주민의 혈세를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꼼꼼히 심의에 나서 강북구민들에게 가장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대 때는 교육과 급식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삼각산동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면, 6대 때는 송천동 통장들과 민원 해결을 많이 하며 도로포장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7대에 와서는 삼양동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구민의 복지수요와 안전한 환경조성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강북구 예산안심사라는 중책을 맡았다. 소감은?

-예결위원장직을 수락해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중책을 맡아 어깨가 다소 무겁지만 꼼꼼하고 공정하게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곳에 적절히 편성되도록



이영심 위원장이 예결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 심의에 나서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예산이 있다면?

-구청을 좀 더 견제 감시하자는 것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생각이다. 행정위원회 건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봉제예산,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일 중에 꿈나무장학재단 출연금 등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400억 정도 세입이 늘었지만 실제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내년도 예산규모와 예산심의 방향은?

-올해 예산규모는 보편적 복지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은 늘어났으나 자체 재정금액은 열악한 상황으

로 신규사업시 꼭 필요한지, 필요성을 잘 점검해 심도있게 심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선심성 행사나 사업은 정확한 것대로 심의해 줄일 부분은 과감히 삭감, 어려운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동료의원 13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청공무원들이 세운 예산도 존중하는 점점을 찾는 것이 할 일이며 예전처럼 다시 심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집행부에서 꼼꼼히 편성한 했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예산안이 가장 공정하게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좀 더 심도있게 주민 편에서 구민의 혈세가 한 톨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다.